

英才教育研究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003. Vol 13. No 2, pp. 23-41

학동기 미술영재성 동기요인 검사도구 개발

이용애 (한국교원대학교 겸임교수)

요 약

본 연구는 학동기 미술영재성의 동기요인 검사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미술영재성의 특성을 추출하여 유목화한 후 측정변인으로 규정하였으며, 각각의 측정변인별로 문항을 개발하여 예비검사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27문항으로 구성된 검사도구를 제작하였다.

담임교사의 지명을 받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679명을 연구대상으로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결과 .93의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한편 초등교육학 전문가, 영재교육 전문가, 미술전문가, 교육통계전문가 4인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주성분 요인 추출방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여 Varimax방법으로 직각회전을 한 구인타당도 검증에서는 흥미/태도/취미 요인, 인내/열중 요인, 호기심/상상력/민감성 요인, 심미적 요인이 추출되었다. 공인타당도면에서는 Barron-Welsh 검사와의 상관에서 .76의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공인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동기 미술영재성 동기요인 검사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하게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미술영재성, 동기요인, 검사도구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술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과정을 거친다(김재은, 1995). 첫 번째는 눈(시각)을 통하여 외부 환경을 지각하는 시지각 과정이다. 두 번째는 시각을 통해 들어온 외부세계가 대뇌의 피질로 전달되어 선형적인 경험, 기억, 지식 등과 협응하는 인지의 과정이다. 세 번째는 인지한 내용이 손(운동감각)에 의해 외부세계로 재표출되는 표현의 과정이다.

동기는 가시적으로 독립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시지각, 인지, 표현의 과정 전반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외부 환경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독특하고 다양하게 지각하고자 하는 마음, 본 것을 시각적으로 기억하고 회상하는 능력, 시각적인 문제해결력, 풍부한 미적 지식에 대한 관심, 인지한 것을 조형의 원리와 요소를 이용하여 정교하게 조직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태도 등에 동기가 작용한다.

미술영재성은 이상의 미술활동을 실행하고자 하는 흥미, 관심, 열정, 민감성, 인내 등이 수반될 때 발현될 수 있다. 특히 학동기 미술영재성은 일반적인 미적발달을 준거로 종류가 아닌 정도에 있어서 탁월성과 가능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미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과 열성 그리고 인내를 포함한 높은 미술적 동기는 성공적인 미술가가 되기 위한 핵심적 요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학동기 미술영재성을 판별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일 구성요인으로 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 또한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동기 아동의 미술영재성 동기요인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미술영재성의 정의

미술영재성의 개념은 Wipple(1919)의 '영재를 위한 분류(classes for gifted children)'에서 유래한다. 이 연구는 미국의 Urbana, Illinois에 있는 공립학교 영재의 진단, 판별, 배치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당시 일선학교에서 영재를 선발하고 판별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88가지의 검사도구를 고찰한 결과, '지적영재성(intellectual giftedness)'과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오늘날 미술영재성은 1972년 Marland보고서에서 ‘시각 및 공연예술(visual and performing arts)’영역으로 명시되면서, 미술영재의 행동 특성을 준거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Hurwitz와 Day(1983)는 미술영재성은 시각적 인지능력, 동기, 창의성, 표현력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예술적 지능(artistic intelligence)이라고 정의한다. 한편 Jellen과 Verduin(1986)은 미술영역에서의 ‘수월성(exceptionality)’으로 정의한다. 즉 시각적 인지능력과 정서의 상호작용 결과로 발현되는 미술영역에서의 수월성 정도가 곧 미술영재성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이용애(2002)는 미술 표현에서 필요로 하는 인지능력, 동기, 창의성, 표현력의 요인이 평균이상의 정도이고 이러한 구성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평균이상의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는 미술적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2. 미술영재성의 동기 요인

미술영재성의 동기(motivation)요인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기초한다. 즉 미술영재성을 지닌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정도의 미술적 동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그 특성이 미술영재성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Feist(1999)는 미술영재들은 자신들의 감정과 정서에 솔직하고 지적이고 민감하며 폭넓은 관심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들은 동기면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성향이 있으며 강한 자아의식, 독립심, 높은 이상, 쉽게 타협하지 않는 성격 등의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

뛰어난 예술가와 일반인의 동기 특성을 비교한 Taylor 와 Barron(1963)의 연구에서도 예술가들은 정서적으로 성숙되었으며, 지배적·모험적이고 예민한 정서, 자유로움, 급진적, 자기충족적, 정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Walberg(1993)의 연구에서도 창의적인 예술가들은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에서 내적 감정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과학자는 현실, 실존적 대상·현상을 파악하고 규명하는 과업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er(1989)는 미술영재의 동기적인 특성으로 첫째, 미술 영역에 전반적인 관심이 많거나 적어도 하나의 영역에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둘째, 미술활동에 높은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동기는 여가활동 시간에 미술적인 활동을 자주 하도록 고무한다. 셋째, 미술 활동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신감은 미술에 대한 자신감, 긍정적인 의식과 태도를 제공하여 표현활동을 하거나 감상할 때 대단히 중요한

심리적 기저를 제공한다고 지적한다. 넷째, 시각적인 예술가는 형태, 선, 색, 질감 등에 특히 민감하다.

이상의 미술영재의 동기적 특성은 미술 작품을 제작하거나 감상하는 태도에 관한 행동에서 작용한다. 동기는 창의적인 수행을 함에 있어 개인적으로 시간, 노력, 에너지, 열성 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탁월한 미술가들은 동기 수준이 높으며 민감하다(Vinache, 1952; Getzels & Csikszentmihalyi, 1976; Torrance, 1962; Wilson & Wilson, 1976). 그 외에도 미술영재는 독립심, 뛰어난 에너지 수준, 홀로 일하고자 하는 욕구, 정확성, 집중력, 직관적, 상상력, 여가 시간에 미술활동을 즐김, 주도성, 인내력, 새로운 매체에 대한 호기심, 시각적 민감성, 자율성 등에서 차이를 나타낸다(이용애, 2001).

본 연구는 이들 연구 결과 및 미술영재와 관련이 있는 문헌으로부터 미술영재성을 예언하는 동기적 특성으로 흥미/태도/취미, 인내/열중/몰두, 호기심/탐구심/민감성, 심미성 등을 추출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미술영재성 동기 특성 추출 근거

특 성	출 처
흥미/태도/취미	Klar & Winslow 1933; Munro 1956; Kough & DeHaan 1955; Inglehart 1960; Ziegfeld 1961; Hildreth 1966; Luca & Allen 1974
인내/열중/몰두	Luca & Allen 1974; Fritz 1930; Munro 1956; Conant & Randall 1959; Inglehart 1960; Luca & Allen 1974; Doob 1975; Peterson 1977.
호기심/탐구심/민감성	Meier 1930; Cane 1936; Munro 1956; Lowenfeld & Brittain 1964; Luca & Allen 1974; Wilson & Wilson 1976; Fritz, 1930; Meier 1930; Lindstrom 1957; Conant & Randall 1959; Lowenfel & Brittain 1964; Luca & Allen 1974; Wilson & Wilson 1976; Lark-Horovitz 1941; Kough & DeHaan 1955; Munro 1956; Lark-Horovitz, Lewis, & Luca 1967; Luca & Allen 1974; Peterson 1977)
심미성	Meier 1930; Cane 1936; Munro 1956; Lowenfeld & Brittain 1964; Luca & Allen 1974; Wilson & Wilson 1976

높은 흥미/태도/취미 등은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미술 표현을 가능하도록 한다. 대

부분의 아동들은 그림 그리거나 만들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언어가 발달하면서 유아기나 아동기에 다작을 하던 아동들도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시각적 표현활동을 멈추는 경향이 있다(Gardner, 1973). 그러나 미술 영역에서 높은 성취 결과를 나타낸 사람들은 그들과 동일한 연령에 있는 아동에 비해 미적발달이 빠르게 나타나며, 보다 많은 양의 표현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재능은 탁월한 수준에 이르도록 발달하는 한편, 일반 아동들은 청소년기 혹은 그 이전 수준에 머물게 된다.

높은 인내/열중/몰두 등의 동기는 미술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미술에 대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갖도록 고무한다. 미술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아동일화가 가능해야 한다. 즉 대상에 대해 자신을 동일화하고 표현 재료에 동일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다시 말해 대상을 보고 그것을 자신의 연필로 혹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지만 그것은 대상이 자신일 수도 있으며 연필이 자신일 수도 있다. 그래서 즐거운 그림을 그릴 때는 얼굴 표정도 같이 밝아지고 어두운 그림을 그릴 때 아동의 얼굴표정은 같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표현활동에 대한 열중과 인내 및 몰두의 정도는 높은 미술능력을 예언할 수 있다.

높은 호기심/탐구심/민감성 등의 동기는 주변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의문과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독특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성향이다. 결과 선행의 경험을 해체해서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술은 사물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속성을 파악하여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보편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숙련의 과정을 통한 통합능력이 요구되는 고차원적인 것이다. 따라서 끊임없는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과 개방적인 탐구심은 독특하고 창의로운 표현의 발현을 가능하도록 고무하는 기능을 한다.

높은 심미성은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않은 것을 판별하고 그 아름다운 것을 선호하는 경향과 외부의 자극을 감동의 대상으로 받아들여 그것에 반응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미술영재성 동기요인 검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검사 단계에 참여한 대상은 충청북도 내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급단위로 무선표집된 600명이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많은 자료나 단순무선적으로 응답한 응답지는 사전에 제외시켰다. 최종적으로 예비검사에 참여한 연구대상 수는 588명으로 <표Ⅲ-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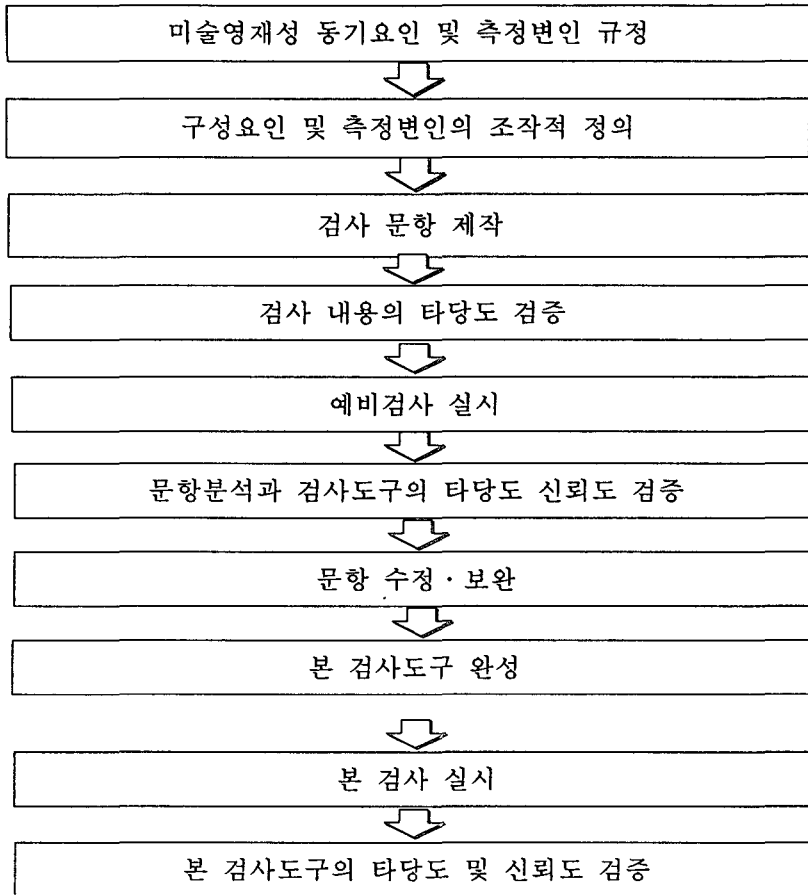
<표Ⅲ-1> 연구대상 수

대상	학년	저학년 (1-2학년)	중학년 (3-4학년)	고학년 (5-6학년)	계
예비 검사 대상		209	175	204	588
본 검사 대상		238	206	235	679

본 검사단계에 참여한 대상은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담임교사의 구조화된 지명법에 의해 추천된 아동 700명이다. 그러나 채점이 애매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지를 사전에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본 검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679명으로 <표Ⅲ-1>과 같다.

2. 검사도구 제작 절차

미술영재성 동기요인 검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절차는 [그림Ⅲ-1]과 같다.



[그림III-1] 연구 절차

미술영재성의 동기 요인 및 측정변인의 규정은 문헌연구로 이루어졌다. 즉 미술과 영재교육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문헌을 고찰한 결과 미술영재성의 동기요인과 관련된 특성을 추출하여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흥미/태도/취미, 인내/열중, 호기심/상상력/민감성, 심미성 등을 동기요인 및 측정변인으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미술영재성의 동기요인 및 측정변인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흥미/태도/취미 : 어떤 대상에 특별한 관심이나 주의를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 성향이다.

나. 인내/열중 : 인내/열중은 주어진 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제를 끝까지 완성하면서 몰두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다. 호기심/상상력/민감성 : 주변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의문과 관심을 갖고 능

동적으로 대처하는 독특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성향이다. 선행의 경험을 해체해서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 심미성 :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않은 것을 판별하고 그 아름다운 것을 선호하는 경향과 외부의 자극을 감동의 대상으로 받아들여 그것에 반응하는 성향이다.

검사문항의 제작 및 내용타당도 검증은 측정변인을 이론 요인으로 하여 하나의 이론 요인에 10개의 문항씩 총 40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작성된 40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초등교육학 전문가, 통계 전문가, 영재교육관련 전문가, 미술 교육전문가로부터 1, 2차에 걸친 내용 타당도의 검토를 받았다. 1차 검토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 5개의 문항을 제거하고, 2차 검토 과정에서 문항의 수가 초등학교 아동이 수행하기에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유사한 구인을 결합하고, 중복된 구인의 측정문항을 제거하여 32개의 문항을 확정하여, 이 검사도구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 실시 후 검사 총점과 문항별 상관계수를 구하여 상관계수가 낮은 문항은 삭제하고, 요인분석 후 요인으로 추출되지 않은 문항들을 제외하였다. 또한 요인 내 문항 간 신뢰도를 고려하여 본 검사에서는 27문항으로 구성하였다(부록 1 참조).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의 5점에서 '전혀 아니다'의 1점까지 아동이 직접 반응이다.

본 검사는 담임교사의 지명에 의한 지명집단 아동 679명을 대상으로 2001년 10월 5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검사의 실시 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저학년의 경우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담임교사가 직접 문제를 읽어 주고 아동이 응답을 하였다.

3.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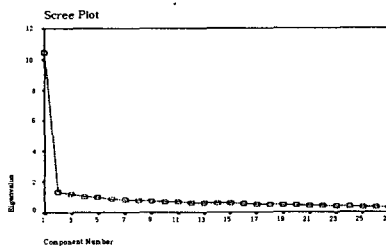
자료 분석은 검사도구의 내용 타당도, 구인 타당도, 공인타당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PC+(version 10.0)을 활용하여 Cronbach α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초등교육학 전공자, 영재교육 전문가, 미술교육 전문가, 교육통계 전문가 4인에게 제시하여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았다. 요인 타당도는 주성분 요인 추출방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여 Varimax방법으로 직각회전하였다. 공인타당도는 Barron-Welsh의 예술척도와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학동기 미술영재성 동기요인 검사도구의 구인타당성 검증

초등학교 아동의 미술영재성 동기 검사의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Kaiser-Meyer-Olkin(KMO)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하여 요인 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탐색하였다. 결과 하위 검사 문항 간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p < .001$). 또한 KMO 지수가 .96으로 높게 나타났다. KMO의 지수가 .90이상이면 요인 분석을 위한 측정 변수들의 타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므로 요인분석을 위한 모델이 성립되었다.

다음으로 요인 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IV-1]과 같이 요인 추출 기준으로 고유값 1이상을 지정한 Scree Plot와 문항의 누적분산 및 고유값에 의한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림 IV-1] Scree Plot 결과

Scree Plot에 의하면, 점진적인 사면은 두 번째 요인부터 사라지고 있으나 고유값 및 누적분산의 결과를 볼 때 고유값 1이상에 해당하는 4요인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IV-1>과 같다.

<표 IV-1>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공통분
	1(흥미)	2(인내)	3(호기심)	4(심미성)	
20	<u>.703</u>				.585
27	<u>.676</u>				.528
9	<u>.645</u>				.687
19	<u>.630</u>				.662
18	<u>.624</u>				.523
1	<u>.557</u>				.610
17	<u>.506</u>				.442
12	<u>.427</u>	.414			.487
5		<u>.680</u>			.603
2		<u>.589</u>			.570
23		<u>.577</u>			.559
3	.409	<u>.570</u>			.518
14		<u>.557</u>			.490
15		<u>.540</u>			.580
11		<u>.490</u>			.558
4			<u>.632</u>		.432
16			<u>.612</u>		.500
22			<u>.602</u>		.557
7			<u>.537</u>		.452
25			<u>.457</u>		.489
21			<u>.435</u>	.431	.497
26	.407		<u>.420</u>		.509
13			<u>.361</u>		.227
6				<u>.697</u>	.596
24				<u>.684</u>	.546
8				<u>.580</u>	.534
10				<u>.543</u>	.511
고유분산	39.855	4.734	4.384	3.811	
설명분산	39.855	44.589	48.973	52.784	
고유값	10.761	1.278	1.184	1.029	

이상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27문항으로 이루어진 4개의 요인이 상위요인인 동기 요인에 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학동기 미술영재성 동기요인은 다음과 같다.

요인 I은 흥미/태도/취미 정도를 알아본 문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흥미/태도/취미'라고 명명한다.

요인 II는 인내/열중 정도를 알아본 문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인내/열중’이라고 명명한다.

요인 III은 호기심/상상력/민감성 정도를 알아본 문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호기심/상상력/민감성’이라고 명명한다.

요인 IV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정도를 알아본 문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심미성’이라고 명명한다.

2. 학동기 미술영재성 동기요인 검사도구의 공인타당도 검증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미술영재의 성향을 측정하도록 개발된 Barron-Welsh의 예술척도 검사(BW)와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IV-2>와 같다.

<표IV-2>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BW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1	.398**				
요인2	.356**	.757**			
요인3	.332**	.656**	.707**		
요인4	.335**	.619**	.646**	.602**	
동기검사	.760**	.888**	.861**	.838**	.723**

** P < .01

<표IV-2>를 살펴보면, BW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도구는 .76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양호한 상관정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인타당도가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학동기 미술영재성 동기요인 검사도구의 신뢰도

27개 문항과 총점 간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 문항이 총점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양호도가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 결과는 <표IV-3>에 제시하였다.

<표IV-3> 학동기 미술영재성 동기 검사도구의 요인별 문항 수와 신뢰도

요 인	문 항 번 호	문항 수	신뢰도 (a)
흥미/태도/취미	1, 9, 12, 17, 18, 19, 20, 27	8	.87
인내/열중	2, 3, 5, 11, 14, 15, 23,	7	.85
호기심/상상력/민감성	4, 7, 13, 21, 22, 25, 16	7	.80
심미성	6, 8, 10, 24	4	.70
계		27	.93

<표IV-3>에 나타나듯이 흥미/태도/취미 요인은 .87이고, 인내/열중 요인은 .85이며, 호기심/상상력/민감성 요인은 .80이고, 심미성 요인은 .70이다. 전체적인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에 비해 심미성 요인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문항의 수가 적은 것에 기인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동기 미술영재성 동기요인을 검사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검사도구는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동기 미술영재성을 판별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의 과정 및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Eisner(1972)의 지적에 따르면 미술과 관련된 연구 중에서 동기요인에 대한 탐구는 저조한 영역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미적인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듯 미술영역에서 동기요인과 관련된 연구가 소홀히 다루어진 이유는 지금까지의 미술은 일부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술영재성은 어느 순간 갑자기 혹은 불현듯 나타나거나, '반짝' 혹은 '전구의 불빛'(Csikszentmihalyi, 1989)처럼 선천적으로 영재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서 쉽게 발생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불현듯 나타나는 것 같은 '결과로서 영재성'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한 결과의 소산(Osborn, 1963)이며, 특수한 영역에 대한 지식과 기능의 누적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지식과 기능이 진보하였다고 영재성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Feldman, 1994). 지식이나 기능을 변환하여 새롭고 유용한 것을 창출

하고자 하는 성향이 결합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학동기 미술영재성의 판별준거는 표현력, 창의성, 인지능력과 더불어 동기도 중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학동기 미술영재성은 잠재적이고 과정적인 관점(Gowan, 1977; Harris, 1963; Swassing, 1985)에서 이해된다. 즉 지금은 가시적으로 탁월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탁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양한 영재성의 정의 중에 영재성을 사회-심리측면에서 정의하는 Tannenbaum의 정의에 따르면, 학동기 영재성은 사회적 준거로 평가되는 가시적 재능이 아닌 잠재적 재능에 해당하는 약속된 재능이다. 특히 미술영재는 음악영재에 비해 영재성이 늦게 발현되기 때문에 잠재된 영재성을 발견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며 어려운 일이다. 미술영재성의 조기 발굴이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어려운 편이지만, 가급적이면 조기에 타당하고 신뢰로운 방법으로 판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영재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김춘미(2001, p. 194)는 창조적인 예술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명 예술유치원, 예술초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예술대학교의 일관된 체계가 한 끈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예술분야에서 창의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미흡한 이유에 대하여 “아동의 잠재력을 일찍부터 개발해 내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대한 예술가의 탄생을 위해서는 “3세에서 9세까지의 교육체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짜임새 있게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미술영재교육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체제 속에서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미술영재의 잠재능력을 발견하고 탐색하여 그들의 높은 욕구와 가능성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Gaitskell, Hurwitz, & Day, 2001; Luca & Allen, 1974; Salome, 1974). 따라서 시각적 표현력이 탁월하고 정서적으로 미술 표현활동에 높은 인내와 몰두를 보이며, 작품 완성에 강한 집착력을 보이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들의 미술적 호기심을 만족시켜 잠재된 미술영재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그들의 미술영재성을 조기에 측정할 수 있는 판별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동기 미술영재성 동기요인 검사도구는 신뢰도와 내용, 구인, 공인 타당도가 양호하게 확보되었다. 따라서 학동기 아동의 미술영재성 구성요인으로 동기요인을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 검사도구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심미성 요인의 문항이 타요인의 문항에 비해 적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은 것은 문항의 수를 수정하여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후속연구로 몇 가지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검사도구의 적용이 판별영재집단으로부터 검증한 것이 아니고 담임교사의 구조화된 지명법에 의해 추천된 잠정적 영재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영재집단을 대상으로 경험적 타당도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종합적으로 미술분야에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아동이 지명되었다. 그러나 미술은 다양한 영역(회화, 조소, 꾸미기 만들기, 평론 등)에 걸쳐있으므로 영역 간에 동기수준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미술영역별 영재집단을 대상으로 본 검사도구를 적용하여 영역별 일치도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춘미(2001). 창조적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영재 및 고급인재 양성. 2001년도 한국 영재학회 춘계학술세미나 자료집(pp. 191-215). 서울: 한국영재학회.
- 김재은(1995).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서울: 교육과학사.
- 이용애(2001). 미술영재성의 구성요인 추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초등교육학연구, 8(1), 149-168.
- 이용애(2002). 미술영재성의 개념 정의 모델 탐색. 초등교육학연구 19(1).
- Cane, F. (1936). The gifted child in art. *Journal of Educational Sociology*, 10(2), 67-73.
- Conant, H., & Randall, A. (1959). *Art in education*. Peoria, IL: Charles A. Bennett.
- Csikszentmihalyi, M., & Robinson, R. E. (1986). Culture, time, and development of talent, In R. J. Sternberg, & J. E. Davidson, *Conceptions of giftedness*(pp. 264-28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ob, H. S. (1975). *Gifted students: Identification techniques and program organization*. Arlington, VA: Education Research Service.
- Eisner, E. W. (1972). *Educating artistic vis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Feist, G. J. (1999).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on artistic and scientific creativity, In R. J. Sternberg, *Handbook of Creativity*(pp. 273-29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ldman, D. H. (1994). *Beyond universals in cognitive development*. New Jersey, Norwood :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Feldman, D. H., & Goldsmith, L. T. (1986). *Nature's gambit*. New York: Basic Books.
- Fritz, H. E. (1930). A search for and conservation of the gifted. *Bulletin of High points*, 12(8), 19-25.
- Gaitskell, C. D., Hurwitz, A., & Day, M. (1982, 2001). *Children and their art: methods for the elementary school*(4th, 8th ed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Gardner, H. (1980). *Artful scribbles: the significance of children's drawings*. New York: Basic Books Inc.
- Getzels, J., & Csikszentmihalyi, M. (1976). *The creative vision: A longitudinal study of problem finding in art*.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Harris, D. B. (1963). *Children's drawings as measures of intellectual maturity: A revision and extension of Goodenough draw-a-man test*.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 Hildreth, G. H. (1966). *Introduction to the gifted*. New York: McGraw-Hill.
- Hurwitz, A. (1983). *The gifted and talented in art: a guide to program planning*. Worcester, MA: Davis Publications.
- Jellen, H. G., & Verduin, J. R. (1986). *Handbook for differential education of the gifted: A taxonomy of 32 key concepts*. Carbondale, I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Klar, W. H., & Winslow, L. L. (1933). *Art education in principle and practice*. Springfield, MA: C. Valentine Kirby.
- Kough, Jr., & DeHaan, R. (1955). *Teacher' guidance handbook, elementary school edition Volume I: Identifyi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Chicago: Science Research Associates.
- Lark-Horovitz, B. (1941). On learning abilities in children recorded in a drawing experiment: 1, subject matter and 2, aesthetic and representational qualities.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9(4), 332-360.
- Lark-Horovitz, B., & Norton, J. A. (1959, 1960). Children's art abilities: The interrelations and factorial structure of ten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30(4), 433-452; 31(1), 453-462.
- Lark-Horovitz, B., Lewis, H., & Luca, M. (1967, 1973). *Understanding children's art for better teaching*. Columbus, OH: Charles E
- Lindstrom, M. (1957). *Children's ar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owenfeld, V., & Brittain, W. L. (1964, 1987). *Creative and mental growth*. New York: Macmillan.
- Luca, M., & Allen, B. (1974). *Teaching gifted children art in grades one through three*. Sacramento, CA: Californi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 Marland, S. P. (1972).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Vol. 1. Report to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US Commissioner of Educat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Munro, T. (1956). *Art education: Its philosophy and psychology*. New York: The Liberal Arts Press.

- Parke, B., & Ness, T. (1988). Curricular decision making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The Gifted Child Quarterly*, 32(1), 196-199.
- Parker, J. P. (1989).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teaching the gifted*. Massachusetts: Allyn and Bacon, Inc.
- Peterson, N. (1977). *Project success in art Introductory packet*. Poulsho, WA: North Kitsap School District, Bureau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 Salome, R. A. (1974). Identifying and instructing the gifted in art, *Art Education*, 27, 16-19.
- Sloane, K. D., & Sosniak, L. A. (1985). The development of accomplished sculptors. In B. Bloom (Ed.), *Developing talent in young people* (pp. 90-138). New York: Ballantine Books.1
- Swassing, R. H. (1985). *Teaching gifted children and adolescents*. Columbus, OH: Charles E. Merrill.
- Tannenbaum, A. J. (1963, 1986). *Gifted Children: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Macmillan.
- Vinache, W. E. (1952). *The psychology of thinking*. New York: McGraw-Hill.
- Walberg, H. J. (1993). Creativity and talent as learning. In R. J. Sternberg(1989). *The nature of creativity*(pp. 340-361), NY : Press Stndicat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 Whipple, G. M. (1919). *Classes for gifted children*. Bloomington, IL: Public School Publishing Company.
- Wilson, B., & Wilson, M. (1977). An iconoclastic view of the imagery sources in the drawings of young people. *Art Education*, 30(1), 5-12.
- Ziegfeld, E. (Ed.). (1961). *Art for the academically talented studented in the secondary school*. Washington, DC: NEA/NAEA.

Abstract

The Development of Motivation Scale in the Visual Artistic Giftedness of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Yong-Ae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instruments which can measure motivation as a component of Visual Artistic Giftedness with in elementary school period. This study prescribed the variable factors of measurement after abstract and classify the characteristics of Visual Artistic Giftedness through literature studies. And it produced instruments those are finally composed of 27 items through the preliminary test. They were evaluated in terms of content validity,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by implementing them to 679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the first to sixth grades. Statistical analyses were carried out to verify the validities and reliability. Content validity was found to be satisfactory by experts' evaluation on the test items. Construct validity was also found to be satisfactory through factor analyses which showed the four factors which the identification instruments were intended to measure such as, interest/ attitude/ taste, endurance/ concentration, curiosity/ imagination/ sensitiveness, aesthetic. Concurrent validity was also found to be satisfactory with high coefficients of Barron- Welsh which were calculated as .76 in motivation. In conclusion, the instruments about motivation of Visual Artistic Giftedness during elementary school period developed by this study are highly reliable on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Key words: visual artistic giftedness, motivation, instrument

1차 심사 : 2003. 5. 18.

발 표 : 2003. 5. 31.

2차 심사 : 2003. 6. 07.

<부록 1> 본검사 문항

1. 나는 여러 교과 중에서 미술교과가 제일 좋다.
2. 나는 내가 미술을 잘한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미술활동을 오래해도 지루하지 않다.
4. 나는 종종 친구나 선생님으로부터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5. 나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시작한 그림은 꼭 완성하는 편이다.
6. 나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려보거나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편이다.
7. 나는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서 그림의 소재를 잘 찾는 편이다.
8. 나는 다른 사람의 미술작품을 보고 표현방법이나 재료 등에 호기심을 갖는다.
9. 내 취미활동은 미술이다.
10. 나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서 미술품을 관람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11. 나는 미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12. 나는 미술활동을 하는 동안 깊이 몰두하는 편이다.
13. 나는 여러 가지 미술활동 중에서 상상하여 나타내기를 제일 좋아하는 편이다.
14. 나는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그림이 잘못되면 어떤 방법을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마음에 들도록 완성하는 편이다.
15. 나는 그림을 그릴 때 전체적으로 살펴보며 색이나 구도를 바꾸어 그림이 조화롭게 완성되도록 하는 편이다.
16. 나는 한 번 본 것은 보지 않고도 비슷하게 그릴 수 있는 편이다.
17. 나는 미술과 관련된 책이나 화가, 조각가들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 편이다.
18. 나는 장시간 여행을 할 때, 그리기 도구를 가지고 가는 편이다.
19. 나는 미술과 관련된 것에는 흥미를 갖고 좋아하는 편이다.
20. 나는 커서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21. 나는 그리거나 만들기를 할 때, 실제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22. 나는 미술활동을 할 때 다른 친구들에 비해 독특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23. 나는 미술활동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고 끝까지 하는 편이다.
24. 나는 자연물이나 미술품을 보면 아름답다는 느낌이 드는 편이다.
25. 나는 그리거나 만들기를 할 때 아주 세세한 것도 잘 표현하는 편이다.
26. 나는 관심이 있는 미술품이나 표현방법, 재료 등에 대해 자주 질문을 하는 편이다.
27. 나는 틈만 나면 그리거나 만들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